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 현대시 연구 방법에 관한 시론

## -챗gpt를 중심으로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고의 목적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을 목도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 현대시 연구가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향방을 모색하는 데 있다. 챗GPT의 기반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는 시퀀스-투-시퀀스(sequence-to-sequence) 과제를 수행한다. 단어와 같은 무언가를 나열하는 시퀀스를 다른 속성의 시퀀스로 바꾸어놓는 작업이다. 이것은 정보를 압축하는 인코더(encoder)와 정보를 변환하는 디코더(decoder)의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다. 트랜스포머는 양자의 정합성이 가진 확률값을 높이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번역의 메커니즘을 따른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어로 챗GPT에 던진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기계어가 아닌 자연어로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실험실을 떠나 인간의 생활로 육박한 시점에서 한국 현대시 연구의 방향성을 경험적이면서 실체적으로 가능하려는 노력은 현재적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의의를 지닌다.

### II 텍스트 개념의 재고

오늘날 한국 현대시 연구에서 비교적 자명한 개념으로 통용되는 ‘텍스트’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작품에서 텍스트를 다기한 행위들이 얹힌 현상으로 사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방법적으로 고찰하여, 챗GPT와의 관계성을 한층 더 심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인공지능이 산출하거나 혹은 그와 얹여 있는 텍스트를 담론적 차원에 국한시킬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이를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물질적 차원과 관계 맺음으로 파악하여, 한국 현대시 연구에 새로 적용될 수 있는 텍스트 속성과 양태의 일면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때 상정하는 ‘현상으로서의 텍스트’는 카렌 바라드의 입론을 경유하여 도출된다. 현상으로서의 텍스트는 ‘내부-작용’ 및 ‘물질적-담론적 실천’의 자장에서 논해진다. 이 밖에 이들을 포괄하는 전제인 ‘존재인식론적(ontoepistemological)’ 체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부-작용은 상호작용과 상이한 속성을 띤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뉜 관찰 대상과 행위 주체가 교류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라면, 미리 확정된 관찰 대상과 행위 주체 없이 뒤섞인 관계망에서 생동하는 것이 내부-작용이다. 이는 물질적-담론적 실천과 이어진다. 출표로 연결된 불가분한 물질적-담론적 실천의 내부-작용은 ‘행위적 현실(agential reality)’이라는 현상을 가변적으로 형성한다. “주체와 객체의 분리 대신에 ‘현상’이라고 불리는 주체와 객체의 얹힘”에 주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간명하다. 텍스트의 담론적 차원을 부각하면서 함께 폐색하게 되는 작품의 물질적 차원을 아우름으로써, 텍스트가 가진 본래의 물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씨줄과 날줄이 엮이면서 구성되는 물질적 실체로서의 텍스트는 그래서 존재론적 또는 인식론적 대상으로만 귀속되지 않는다.

### III 질문과 응답의 얹힘이라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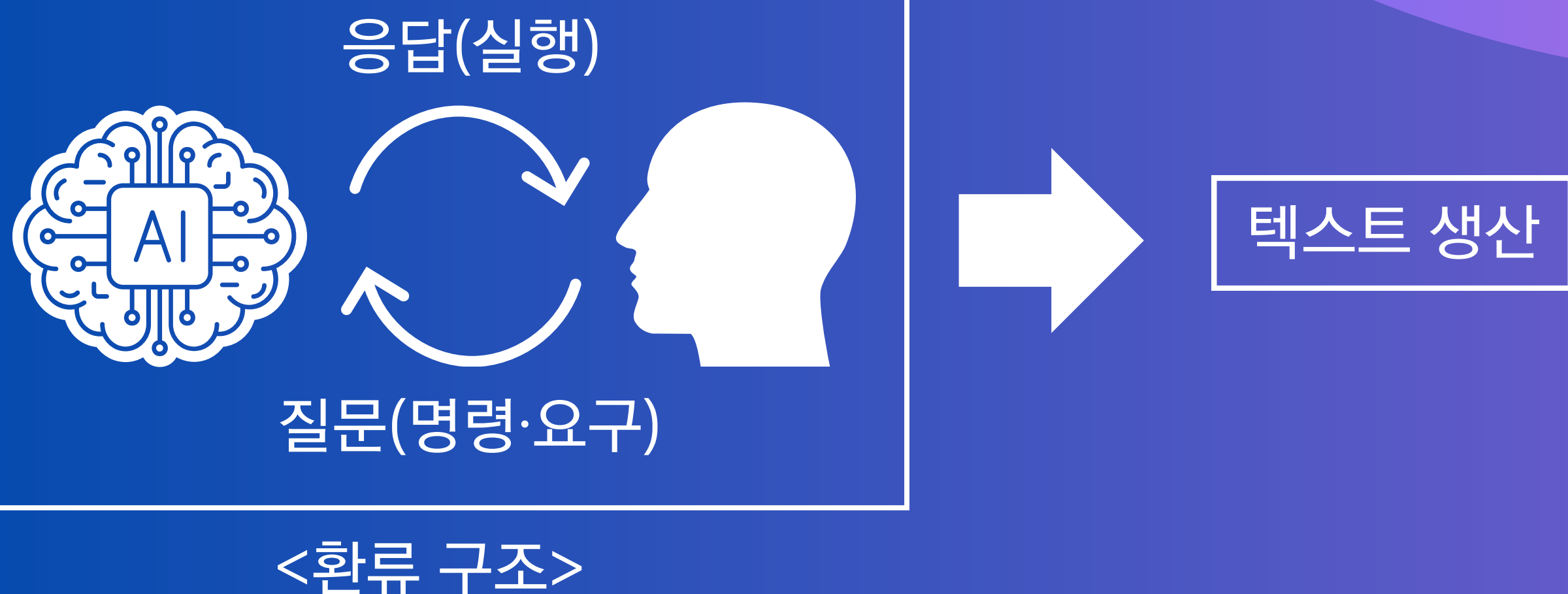
챗GPT의 텍스트 산출을 보이는 대로 ‘인간의 질문(명령·요구)→챗GPT의 응답(실행)’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순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도식은 주체와 객체를 뚜렷이 구별짓는다. 저마다 상호작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주도적으로 명령·요구하는 인간 주체와 수동적으로 실행하는 챗GPT 객체’, 혹은 ‘수동적으로 질문하는 인간 객체와 주도적으로 응답하는 챗GPT 주체’라는 대립적 양상을 취하기 쉽다. 그러나 인간과 챗GPT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 대신에 ‘현상’이라고 불리는 주체와 객체의 얹힘”이 두드러지는 내부-작용을 수행한다. 양자는 서로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를 쓰는 독자로서의 기능을 공유하는 까닭이다. 챗GPT가 사전 학습한 자료는 인류가 축적한 각종 텍스트의 집적으로서의 빅데이터이고, 새로운 텍스트의 산출은 이를 읽어내고 재조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더불어 챗GPT는 개별 인간의 질문(명령·요구)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 텍스트를 생성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챗GPT의 산출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챗GPT가 내놓은 결과를 읽고 인간은 원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질문(명령·요구)하는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한 최종 텍스트는 그러한 피드백을 거쳐 산출되는 것이다. 위의 도식을 수정하면 ‘인류가 쌓은 빅데이터를 챗GPT에 습득시킴→인간의 일차 질문(명령·요구)→일차 질문을 수렴한 챗GPT의 일차 응답(실행)→산출된 텍스트를 읽은 인간의 이차 질문(명령·요구)→이차 질문을 수렴한 챗GPT의 이차 응답(실행)……’의 환류 구조가 짜인다. 게다가 이렇게 산출된 텍스트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감수하고 편집하여 웹에 업로드하면, 챗GPT의 사전 학습 빅데이터는 훨씬 풍성해지고 인공지능의 역량이 강화한다. 결론적으로 챗GPT가 산출하였다고 해도 텍스트를 전적으로 챗GPT의 몫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챗GPT가 생성한 텍스트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의 물질적-담론적 실천 속에서, 인간의 질문(명령·요구) 및 챗GPT의 응답(실행)이 불가분하게 얹혀 있는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IV 광의의 시학과 과제로서의 연구방법론

작가론과 작품론은 응당 문학이 인간의 고유한 활동임을 전제한다. 인공지능이 산출한 텍스트의 제작 과정에는 인간이 배제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만의 창작이라는 종래의 규정을 벗어나므로 시 연구 방법론 역시 유연하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인문 비평과 기계 비평을 아우르는 연구 관점의 확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문화론적 시 연구는 계속하여 유효성을 지닌다. 예컨대 챗GPT 등의 운용 및 발전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오늘날의 시 개념을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는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였음을 명기하고 출간된 시집이나 화제를 불러 모은 텍스트가 갖는 다양한 효과 등을 논할 수 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학 자체의 방향 전환이다.

이때 시학은 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협의로만 간주되지 않는다. 주체와 객체가 얹힌 현상적 쓰기를 관통하는 광의로 시학을 인식할 때 시 연구의 지평도 같이 넓어질 수 있다. 언어의 지시 대상을 따라가는 “선행적 읽기를 중단하지 않고도 텍스트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문학적 공간을 모든 문장에(신문 기사, 과학적 공식, 대화의 한 토막) 재각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크 데리다의 설명으로 이를 부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산출한 텍스트 이후 펼쳐진 시 자장에서, 전통적인 작가론과 작품론에 대한 혁신은 이상의 논의를 감안한 다음에 성립될 여지가 생긴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기조는 있다. 인간이 쓴 시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대립적 텍스트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성형 인공지능이 시를 창작하므로 시인이 곧 대체될 거라는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정동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인간의 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언제나 능가하리라는 견해가 그러하다. 이러한 입장은 양극단에 위치하는 듯하지만, 현상으로서의 텍스트를 편의적으로 단면만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나날이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쉬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관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광의의 시학  
(주체와 객체가 얹힌  
현상적 쓰기의 활동성 연구)

협의의 시학  
(시를 연구하는 학문)